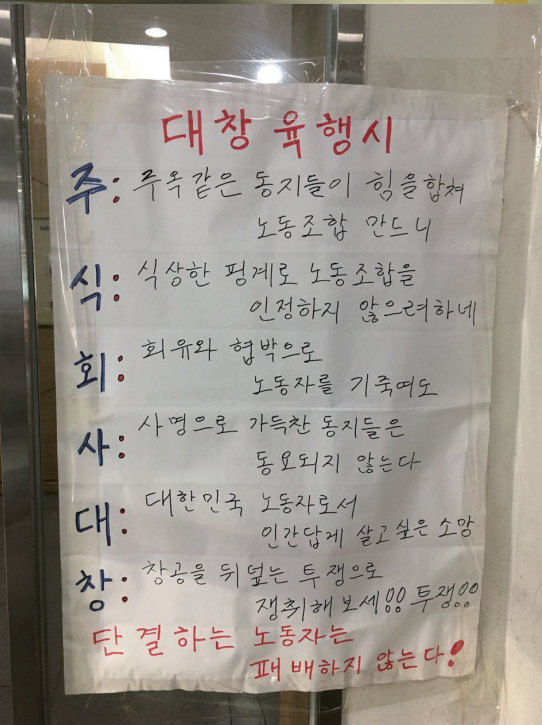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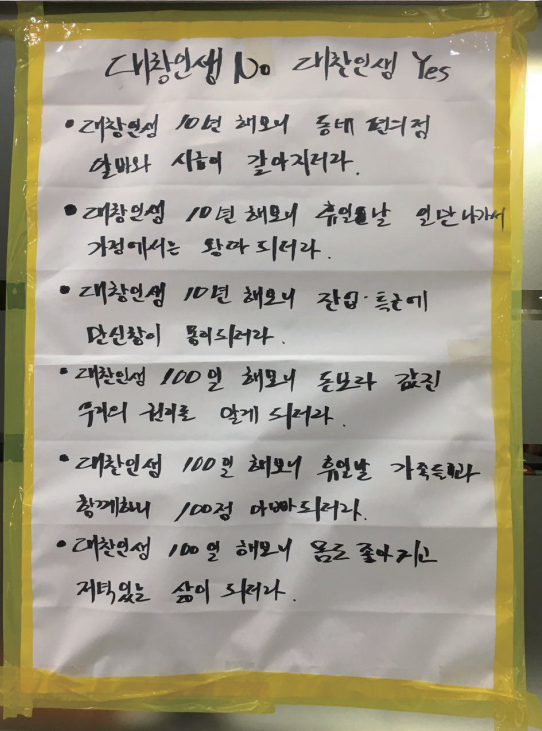




권리함께 유전자

“우리 투쟁 승리하면 선전물을 만들어서 시화공단에 다~ 알리고
신생노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퍼뜨리고 싶다.”

10월 27일 지부 교육선전담당자 회의에서 대창지회 선전부장들이 한 얘기가.
‘9기 2년차에 꼭 해야 할 교선헌동을 조합원 5%에게 물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대창 조합원들이 꼭 해야 할 일로 꼽은 대답이다. 일상에서 노조할
권리를 퍼뜨리고, 신생노조가 생기면 힘 실어 함께하는 경기지부의 권리함께
유전자가 대창 신생 조합원들의 핏 속에도 대차게 꿈틀대고 있다.

협력불패 자부심

“대창 조합원들이 굳건하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 걱정하다가도
조합원들 얼굴 보면 오히려 힘을 받고 온다. 지부 전체가 이번에 꼭
성공하자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좋다. 꼭 승리하자.”

지부 사무장단 회의 등에서 간부들은 올 해 가장 소중했던 일로 대창 투쟁을
꼽았다. 오랫동안 함께 만들어 온 협력불패 자부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는 2012년 에스제이엠 직장폐쇄 철회 투쟁에 모든 걸 걸고 신나게 함께
싸워 이겼다. 2013년 우리지회 16명 조합원을 위해 1,500명이 파업하고 모여
신생노조를 만들었다. 2014년엔 76년 무노조 삼성에 비정규직 수리기사들이
노동조합 만드는 일도 적극지원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과
함께하는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하이디스 대만원정투쟁에는
여러 다른 사업장에서 함께해 노동자 국제연대판의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매년
사업장 교섭을 마무리하면 투쟁기금을 건어 투쟁사업장, 신생사업장에
보태주는 곳도 늘어, 해가 갈수록 자리를 잡고 있다.

대창 권리의 꽃 함께 피우자

대창지회의 전면파업 투쟁이 2달을 넘겨, 회사의 생산위기 대 노동자
생계위기의 팽팽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무게중심을 확 기울일 결정적 힘을
실을 때다. 노조방어투쟁에서 권리확산 활동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를
대창에서 만들자. 협력불패 전통을 대창에도 굳건하게 세워, 대창인생의 꽃을
함께 피우자.

안건1. 대창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안)

1) 특별결의 취지

- 대창사측은 2개월의 파업으로 물량수급 결정적 문제에도 굽히지 않음. 개별자본의 물량압박에 의한
이윤손실을 감수하고서도 버텨야 할 요인이 있음을 의미함.
- 회장특성, 경기지역 사용자들의 계급적 저항을 고려해야 함. 자본가는 경기와 안산에서 노조깨기
실패(에스제이엠,두원), 따라서 자본은 노조설립 물꼬막기 총력.
- 경기지부가 방어적 유지를 넘어 공세적 확장을 위해선 반드시 집중돌파 필요. 경기지부는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 오고 있음.(최근 각 사업장 자발적인 기금 결의 및 지원)
- 지부 각 사업장 간부들 또한 “대창물뽕”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꼽으며 신생노조의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함.
- 대창에 집중 지원연대는 일상적 기풍을 넘어서 중대한 시점의 특별결의로 인식해야함.

2) 결의방안

- ① 결의절차 : 지부 임시대의원 대회(10월 31일)를 거쳐 결의
- ② 결의액수 : 조합원 1인당 월 20,000원
- ③ 운영기간 : 3개월(* 투쟁 상황에 따라 중단 및 연장 결의)
- ④ 기금성격 : 투쟁기금으로 한다. (세부운영은 지회자율에 맡김)
- ⑤ 사용방식 : 환입을 원칙으로 한다.(이후 상황 필요시 판단. 환입시 각 사업장 조합원에게 귀속)
- ⑥ 납부방식 : 이후 3개월 매달 9일까지
 - * 사업장 상황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부 투쟁기금에서 선지급 가능
 - * 납부 계좌 : 신한 132-077-724965 정규전